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국제 심포지엄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전문무용수, 내일을 설계하다

"Professional Dancers, Design a New Tomorrow"  
Success Cases of Overseas Dancers' Career Transition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국제 심포지엄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Professional Dancers, Design a New Tomorrow"

- Success Cases of Overseas Dancers' Career Transition

전문무용수, 내일을 설계하다

2015. 05. 30 (sat) 2:00 PM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크프스키홀

주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2015 국제 심포지엄

“전문무용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다”

- 해외 무용수 직업전환 성공 사례초청 발제

인사말	박인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축사	허묘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기조발제	“무용, 그 이후” 폴 브롱크호스트   IOTPD 회장, 네덜란드 전문무용수지원센터(SOD) 센터장	
<b>Session I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개</b>		
사회 : 장승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임이사		
발제 I	독일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개 자브리나 자도우스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Stiftung Tanz 이사장
발제 II	한국	한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개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b>Session II 해외 무용수 직업전환 성공 사례초청 발제</b>		
사회 :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발제 I	프랑스	“당신은 영원한 무용수입니다”   피에르-마리 퀘레 (전)몬테카를로 발레단, 리옹국립발레단 단원 (현)마르세이유 국립무용학교, ESDC 로젤라 하이타워 국립무용학교 사무처장
발제 II	스위스	“다시 시작하는 끝”   허선혜 (전)유럽 유수의 현대 안무가들과 작품활동 (현)중의학 침술가, 스웨디시 마사지 트레이너
발제 III	영국	“더 높은 비상을 위하여”   리안 벤자민 AM OBE (전)영국 로얄발레단 수석무용수 (현)인테리어 디자이너 *영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센터장 제니퍼 커리와 질의응답으로 진행예정
발제 IV	네덜란드	“수의사가 되는 다양한 방법”   폴 워츠 (전)네덜란드 유수의 현대 무용단 활동 (현)판사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Professional Dancers, Design a New Tomorrow”

- Success Cases of Overseas Dancers' Career Transition

Greetings	In-Ja Park   Chair,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Congratulations	Myo-Yeon Hur   President, Seoul Cyber University	
Keynote Speech	“Dancing and Beyond” Paul Bronkhorst   President of IOTPD, Executive Director of Omscholing Dancers Netherlands	
<b>Session I Introduction of Career Transition Center</b>		
Moderator : Seung Heon Jang   Director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Presentation I	Germany	Introduction of Stiftung TANZ – Career Transition Center in Germany Sabrina Sadowska   Chairwoman, Stiftung TANZ
Presentation II	Korea	Introduction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Korea In Hee Kim   General Director, Seoul Ballet Theater & Committee Member, DCDC
<b>Session II Success Cases of Overseas Dancers' Career Transition</b>		
Moderator : Dongyoub Sh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Committee Member, DCDC		
Presentation I	France	“You will always be a dancer!”   Pierre-Marie Quéré (Before) Les Ballets de Monte Carlo, Lyon Opéra Ballet (Present) Administrative Director of ESDC Rosella Hightower,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Danse de Marseille
Presentation II	Switzerland	“Dream Again!”   Sun Hye Hur (Before) Worked with well-known choreographers in Europe (Present) Chinese Medicine Acupuncturist, Swedish Massage Trainer
Presentation III	U.K.	“Flying High”   Leanne Benjmin AM OBE (Before) Principal, The Roayl Ballet (Present) Interior Designer * Q&A session with Jennifer Curry, Executive Director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in U.K.
Presentation IV	Netherlands	“Many ways to become a veterinarian”   Paul Waarts (Before)Danced with major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 Netherlands (Present)Criminal judge at the Court Midden-Nederland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허묘연

2004년 모나코 댄스포럼에 참석한 후 무용수 직업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문훈숙 단장님, 박인자 현 이사장님과 김인희 단장님께서 주축이 되어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우리나라 정부 지원하에 설립된지 10년이 채 안되는 금년에 서울에서 이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한 IOTPD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놀라운 발전에 깊은 경의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수명 100세를 내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긴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무용예술인들의 After Career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사명은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 홀에서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무용예술인들이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무용예술인들 복지에 대한 높은 차원의 관심을 유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t has been less than a decade since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was established based on government support, with leading roles performed by General Director Julia Moon, who publicized the importance of dancers' career transition in Korea after attending the 2004 Monaco Dance Forum, incumbent Chair In-Ja Park, and General Director In-hee Kim. Despite its short history,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s holding an international symposium this year in Seoul, with participation by top experts in the field from Korea and abroad. I sincerely congratulate and express my deep respect for the astounding development of the Center.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will soon reach 100 years. Thi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led us to deeply consider how we can lead productive lives. This era has brought with it the prolongation of life and art. Against this backdrop,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has an important mission as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dancers in their post-dancer life.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see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be held at the Tchaikovsky Hall of Seoul Cyber University. I hope the symposium raises awareness of career transition among dancers and contributes to increased interest in dancer welfare in Korea.

Thank you.

Myo-yeon Huh  
President, Seoul Cyber University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

전문무용수들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모색하고자 준비한 의미 있는 국제 심포지엄

2015 IOTPD 국제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 즈음해 특별히 마련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다른 분야 보다 은퇴시기가 빨리 찾아오는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도우려는 국제적 협의기구인 IOTPD는 지난 1993년 이후 다각적인 방법과 정체성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전문무용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국내 · 외 발제 중 특히 네 분의 해외 성공 사례자들의 발제는 우리 무용인들에게 인식전환의 계기는 물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먼 길을 달려 참석해주신 폴 브롱크호스트(Paul Bronkhorst) / IOTPD 회장, 자브리나 자도우스(Sabrina Sadowska) /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 프랑스 피에르-마리 퀴레(Pierre-Marie Quéré) / 마르세이유 국립무용학교와 칸느 로젤라 하이타워 국립무용학교 사무처장, 스위스 허선혜(Sun Hye Hur) / 중의학 침술사 및 스웨디시 마사지 트레이너, 영국 리안 벤자민(Leanne Benjamin AM OBE) /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덜란드 폴 워츠(Paul Waarts) / 판사 등 네 분의 해외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성공 사례 발표를 기꺼이 맡아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과 IOTPD 서울 총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회의 장소를 비롯하여 여러 행사 전반에 많은 후원을 해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 · 외 무용 관계자들에게 한국 무용계의 위상을 알리고 무용예술 발전을 위해 보다 넓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방안과 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과 선진복지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그 실천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significant international symposium that is being held to plan new lives for professional dancers**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for attend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which is being specially held at around the time of the 2015 IOTPD Annual Conference in Seoul.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 is an international consultative organization that promotes the career transition of dancers, who retire at an early age compared to people in other professions. Since 1993, IOTPD has been striving to identify diverse methods and identities.

Speakers from Korea and abroad will give presentations today on the theme, "Professional Dancers Plan a New Tomorrow." The presentations that will be given by four speakers who achieved success overseas will especially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thoughts of dancers and to their development of a new challenging spirit.

I thank President Paul Bronkhorst of IOTPD, In Hee Kim, General Director of Seoul Ballet Theater, Chairwoman Sabrina Sadowska of Stiftung TANZ – Transition Center Germany, Secretary General Pierre-Marie Quéré of Administrative Director of ESDC Rosella Hightower,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Danse de Marseille of France, Sun Hye Hur from Switzerland who is a Chinese medicine acupuncturist and Swedish massage trainer, interior designer Leanne Benjamin AM OBE from Britain, and Judge Paul Waarts from the Netherlands for traveling long distances to attend the symposium and for their presentations on successful cases of occupational change. I also thank Minister Jong-deok Kim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officials of Arts Council Korea for providing full support for the symposium and the IOTPD Annual Conference in Seoul.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Board Chairperson Se Ung Lee of Seoul Cyber University for providing substantial support for the holding of the symposium, including a venue for meetings.

I hope today's symposium raises awareness of the high stature of the Korean dance sector among dance industry officials from Korea and abroad, and serves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broader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dance. I also hope the symposium leads to the identification of various ways of support and a future direction for formulating relevant policies.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will demonstrate increased efforts and devotion toward the career transition and improved welfare of professional dancers in Korea.

Thank you.

In-Ja Park  
Chair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 Dancing and beyond...

무용, 그 이후



# Paul Bronkhorst

President of IOTP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Executive Director of Omscholing Dancers Netherlands

**폴 브롱크호스트**

IOTPD 회장 및 네덜란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SOD 센터장

## 무용, 그 이후

### 폴 브롱크호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심포지엄에 초청해주신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은 아니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환대 외에도 무용수의 건강문제, 특히 직업전환이라는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면서 감명을 받고 합니다. 모든 무용수들에게 직업전환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제입니다.

무용은 멋진 직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용이 직업에 속하거나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용은 직업이나 소명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용수는 자신의 직업에 매우 헌신적입니다. 다른 직업들과 달리 무용수들은 9-5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상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용수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것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아마도 무용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무용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나 너무 과민한 성격인 탓에 부모가 발레 수업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원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용 경력이 고지에 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필수이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발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무용수들이 어릴 적부터 이미 무용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무용수가 되기로 결정한 시기가 정작 언제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무용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용을 시작해보고 좋으면 전문 무용수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무용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다른 직업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료에 의해 또는 스스로가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놓치면 영영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계획적으로 선택을 했다기 보다는 어쩌다 보니 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용수는 왜 무용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또는 제가 이 질문에 실질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답변과 설명을 들었고, 일부의 경우에는 학구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좋아서? 또는 엔도르핀 분비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6주 전 참석한 무용과 의학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무용은 나이 또는 무용을 얼마나 잘하건 그 수준에 관계 없이 사람들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설명이야 어찌됐건 모든 무용수들이 사회경제적인 관점으로 무용이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무용수는 급여가 가장 낮은 직업 중 하나에 속합니다. 다른 공연 예술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무용수의 평균 수입은 뮤지션, 배우 등 다른 공연 예술가보다 낮습니다.

또한 무용수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일자리를 찾기가 쉬워서도 아닙니다. 뛰어난 무용수라고 할지라도 일자리를 거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뛰어난 동료 무용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용수를 둘러싼 노동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용수라는 직업은 취약점이 많고, 부상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무용을 직업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전문무용수는 공연예술가 중에서도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렬하고 힘이 들지만 또한 보람을 느끼는 직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이라기 보다는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무용수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자제력이 있고, 부러워할만한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무용수의 단점은 너무 강렬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용 경력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으로 치자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할 즈음에 해당합니다.

#### 직업전환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가?

무용수가 무용 경력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 그의 인생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일상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간 동안 무용수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용이라는 힘든 직업의 특성상 그 동안 중요한 능력과 경험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헌신, 자제력, 체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용수들은 완벽주의자이며, 협력을 잘하고, 야망이 있으며, 평균 이상의 책임감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며,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똑똑합니다.

놀랍게도 무용수들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특히, 무용 경력이 끝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춤은 출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무용을 하면서 이러한 자질들을 개발해 왔으며 이것들이 향후 직업에 얼마나 유용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용 경력에 종지부를 찍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능력과 경험은 쓸모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무용수가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능력과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무용 경력이 기술적이거나 예술적으로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용수로서의 경력은 특수하고 편향적입니다. 추가적인 교육이나 연수 없이는 다른 정규직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무용계가 아닌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직업전환기의 무용수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적 자원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언뜻 보면 무용수의 직업 전환 지원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이러한 지원이 결국에는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공률만이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무용수의 능력과 경험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면 무용수로 일구어냈던 성공가도를 다시금 달릴 수 있습니다.

직업전환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용수들이 이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용수들은 자신과 직업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무용수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무용수로서의 특수한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직업전환지원조직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용수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됨을 감안할 때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구조를 개발·유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천천히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작금의 글로벌 경제금융위기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국가의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용 기회와 상태가 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무용수의 니즈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도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센터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업전환은 기술적, 관료적, 법률적, 비용효과적인 문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 삶의 의미 추구, 자아 실현, 더욱 풍요로운 개인과 사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 Dancing and beyond

**Paul Bronkhorst**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Dancer Career Development Center for the invitation to talk at this symposium. It is an honor and pleasure to be here. This is not my first time to Korea and each and every visit I am impressed not only by the hospitality of our colleagues in this country but also by their level commitment to the topics of health and particularly the career transition of dancers. The challenge that every dancer has to face sooner or later during the dancing career.

Dancing is a fascinating profession. One can even question whether it is a profession. It is more of a vocation or a calling if you wish. Dancers are very devoted to their job. Unlike other professions dancers do not work from 9 to 5, they work 24/7 or perhaps I should say they are 24/7. To be a dancer is living a certain lifestyle and the line between who one is and what one does is a very fine one. Perhaps in the case of dancers, the line might not even be there.

Most dancers start at a very young age. Sometimes put on ballet by their parents, because the child was restless, perhaps overactive. Sometimes because they wanted it themselves. But a start at a very young age is required, or at least comes in handy, to increase the chances on a high level career, especially in ballet.

I have heard from many dancers that they knew already from childhood age that they wanted to dance. If I ask them however when they really chose to become a professional, most of them are unable to answer that question. Obviously dance is so attractive that youngsters, who start to dance and like it, will go for a career as a dancer. They are so focused on their development that they may tend to forget that other career options exist. Quite often they are encouraged by their peers and every so often they themselves sense/realize that it is a once in lifetime opportunity. If you don't grab it, you will miss it.

Most dancers that I know did not really make a deliberate choice, but they rather found themselves in the profession.

That raises the question: 'Why do dancers dance?' and I am not sure whether we or I can actually answer that question. Since I have not been a dancer myself I have always had a hard time to really understand that. I have heard many different answers and explanations, some more academic than others. For the love of it? Or because of endorphins the hormones that are considered to produce feelings of euphoria? Six weeks ago I was at a conference about dance and medicine where I heard a physician explain that dance has a very positive affect on well being of people no matter what age or level dance. Whatever the answer may be, for certain dancers do not choose for a dancing career for its socio economic perspective. Globally dancers belong to the category of lowest paid professions. Even compared to other performing artists, dancers earn in average less than their fellow performing artists like musicians and actors.

Also dancers do not choose for this profession for its easy career perspective. Even when a dancer is talented it does not mean that he or she will find a job just like that. There are many more talented colleagues and therefore the competition on the labor market for dancers is fierce.

A dancing career is vulnerable and dancers are prone to injuries. Social protection is in many countries insufficient. In some countries dancing is not even recognized as an occupation.

Professional dancers are known as the top athletes among performing artists. It is an intensive, demanding, but also a rewarding career. In most cases not so much financially, but rewarding because it allows dancers to express themselves. Dancers are dedicated, passionate, (self) disciplined and have enviable stamina.

The downside of a dancing career is that because it is of such an intensive and demanding character that it doesn't last long. At a certain point, dancers have to end their performing career and choose a new profession. This happens at an age when a career is just starting to take off in other professions.

Why is career transition support needed?

When a dancer terminates his dancing career his life is turned upside down. The daily life changes drastically. What could be taken for granted until the day that the performing career ends is no longer self-evident. The daily routine becomes a totally different on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period creates significant challenges for individual dancers.

What most dancers don't realize is that due to the demanding nature of a dancing career they have accumulated important skills and experience. I already mentioned dedication, discipline and stamina, but on top of that dancers are perfectionists, know how to collaborate, are ambitious, have a more than average developed level of responsibility, are goal oriented, stress resistant and last but not least are intelligent.

What dancers, surprisingly enough, is lacking is self-confidence, particularly at the end of their performing career. I have often heard: 'I can dance, but what does that mean to society?' In general most dancers are not aware that they have developed these characteristics and how useful these can be for their future career.

These skills and experience are in danger of being wasted as the active dancing career comes to an end without adequate support.

At the same time dancers need to acquire additional skills and competences to regain a foothold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high standards both technically as well as artistically and the specific nature of a dancing career the experience of a dancer is particular and one-sided. Without further training or supplementary educ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a more regular job, especially if someone strives for a job outside the dance sector.

Providing additional education will of course impose a cost on society. However not providing support to dancers during their transition also imposes a cost on society in the form of wasted human capital.

At first sight transition support to dancers may seem costly. However the success rates of the existing transition programs show that providing this type of support pays off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to emphasize that the success rates are not necessarily the merit of the transition programs. The skills and experience of dancers that I talked about earlier are equally important. Once dancers have found a new direction they are able to fall back on the same drive that made them successful as dancers while dancing.

The role of transition support centers is to guide them through all the changes and help them to find new directions. In practice that is easier said than done, especially because dancers tend to identify themselves strongly with their profession. Therefore all dancers should have access to re-training and counselling professionals who are sensitive to the unique concerns of dancers. This is a vital condition for a successful transition. Transition organizations must be independent and work confidentially.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dancer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maintain an international structure to coordinate transition programs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financing of new ones.

Although it seems that we are slowly getting back on the right track again, the current global economical and financial crisis has an unavoidable effect on cultural policy in different countries. There is a great variety in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tatuses and that provides new challenges to tailor a program to the needs of dancers. Even some of the existing centers are reviewing their programs for reasons of sustainability.

Career transition issues tend to sound very technical, bureaucratic, legalistic and about cost efficiency. Essentially however these issues are about human dignity, freedom of choice, pursuit of meaning in life, self-fulfillment, individual and social enrichment.



# Introduction of Stiftung TANZ

Transition Center in Germany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개



photo by Vincent Leiffer

# Sabrina Sadowska

Germany

Danced as a professional dancer at the Theater Trier, Bremerhaven City Theater & Halle Opera, Germany  
Founded together with Inka Atassi a Foundation for Transition, Germany Stiftung TANZ-Transition Zentrum Deutschland in 2010  
Management director & first ballet mistress of the Chemnitz Ballet.  
Artistic director of the Festival TANZ|Moderne|TANZ in Chemnitz  
Chairwoman of Stiftung Tanz, Germany

## 자브리나 자도우스 / 독일

브레머하펜 시립 극장과 할레 오페라 전문무용수 활동  
2010년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Stiftung Tanz 설립  
현 켐니츠 발레단 수석 발레 미스트리스 겸 행정감독  
��니츠 모던 댄스 페스티벌 예술감독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Stiftung Tanz 이사장



## 독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개

### 자브리나 자도우스

#### 1. 재단의 설립과 운영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STIFTUNG TANZ-Transition Zentrum Deutschland)는 2010년 1월 19일 잉카 아타시(Inka Atassi)와 자브리나 자도브스카(Sabrina Sadowska)의 사적 자금으로 창립되었으며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다. 재단은 전문무용수들의 교육, 양성, 지역사회교육, 전문교육의 제공 외에도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비영리 목적으로 무용수를 배타적·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경력 기간 동안 무용수들의 예술 성과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 무용 경력이 종료된 후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동안에는 적절한 모든 수단(www.stiftungtanz.com/?lang=en)을 동원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무용수들을 지원한다. 예술, 정치, 사회, 경제계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재단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발레단(Hamburg Ballet)의 존 뉴마이어(John Neumeier)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 2. 배경과 기원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는 정치적 의제로써 두 가지 접근 방법에 의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단체나 연방주정부(Laender) 모두 이 문제에 책임을 느끼지는 못했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야 무용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고, 1998년 독일연방 발레무용단장회의(Federal German Ballet and Dance Theater Director Conference)가 설립되어 실무그룹에서 해당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구성원이자 무용상임위원회 태스크포스 “전환과 사회적 양상(Transition and social aspects)”의 팀장이었던 자브리나 자도브스카는 2007년 여름 코넬리아 도커(Cornelia Dumcke) 박사에게 독일의 직업전환에 관한 연구를 위탁하였다. 이 연구는 독일공연예술기금(German Fund of Performing Art) 및 다른 무용 조직의 지원을 받았다. 독일 최초로 무용수 직업전환이라는 영역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및 대응의 필요성이 독립·공립 무용단을 대상으로 범국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평가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노동부, 교육부, 무용노동조합, 고용주, 예술가·무용수 사회보험, 의료, 사고, 상호보험협회, 예술가연금기금 등 무용수 직업전환과 관련된 정부기관, 단체 등 각계 주요 대표들을 회의에 소집하는 것이었다. 회의의 목적은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직업전환이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인식을 공유했으나 어떠한 기관도 책임을 떠맡지는 않았다. 이와 동시에 직업전환센터를 새로 설립하게 되면 모든 기관과 정부부처가 함께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용수의 직업전환이라는 주제가 독일 연방의회 문화정책특별조사위원회(Enquete Commission on Culture)의 최종보고서에 언급되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직업전환재단의 설립을 권고하였다(BT-D.16/7000, S. 321).

### 3. 서비스

#### 정보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Stiftung TANZ)는 직업전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비밀이 유지된다. 전화, 이메일, 스카이프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 개별 지원과 상담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각지에서 무용수의 개별 관심사, 능력, 감정 상태에 따라 직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일정이나 경비 계획을 세우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외부상담비용도 90% 이상 지원된다. 본 재단은 무용수의 직업전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지원을 제공한다.

#### 강의 및 워크숍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독일 전역의 공립·프리랜서 무용단, 안무센터, 무용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을 제공한다. 재단은 연 4회 정도 1~2일 기간의 워크숍을 독일 전역에서 주최하며, 그룹세션과 개별활동으로 구성된다. 베를린 주어픽스(Jour Fix) 이니셔티브는 정규 모임을 통해 직업전환 중인 무용수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조금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 경력이 끝나고 새로운 직업전환을 모색 중인 전문무용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과정, 학비, 교통비, 교육 기간 동안의 보육비에 대해 연 3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경력이 7년 이상인 전문무용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력 기간 중 최소 5년은 독일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EC 회원국 또는 쉥겐 협약국의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구거주허가증이 필요하다.

#### 이니셔티브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전문무용수, 발레마스터, 보조요원, 무용강사, 안무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직업의학연구소 무용의학부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문화미디어부와 베를린공공부문산재병원(UKB)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용으로 인한 산재 사고 및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한다.

#### 직업전환 네트워킹 및 옹호활동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정부부처, 정치조직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무용수직업전환 국제기구(IOTPD)의 멤버로서 해외의 모든 국제직업전환센터와 네트워킹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등 해외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상담해주고 있다.

**멘토링**

독일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다양한 직업과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전환과정을 겪은 무용수들을 통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무용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고용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5주년**

2010년 8월 베를린 사무소가 문을 연 이후 650명 이상의 무용수들이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사무소에는 두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극단 근무 경험이 있는 심리학자이다. 지금까지 9만 유로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재단의 연간 예산은 약 10만 유로로 두 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5주년을 기념하여 함부르크 발레단(Hamburg Ballet), 슈투트가르트 발레단(Stuttgart Ballet), 프리드리히스 타트팔라스트 발레단(Ballet of the Friedrichstadtpalast), 탄츠테아터 카셀(Tanztheater Kassel)/ 카셀 주립 극장 (Staatstheater Kassel), 기센 무용단(Dancecompany Gießen), 만하임(Mannheim), 하이델부르크(Heidelberg), 뮌헨 바바리안 주립 발레단(Bavarian State Ballet of Munich)이 갈라 행사에 참여하는 등 많은 무용단들이 모금 활동에 기여한다. 이 행사로 직업전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Introduction of STIFTUNG TANZ – Transition Zentrum Deutschland**

**Sabrina Sadowska**

**1. The Idea of a Foundation and the Start of Operative Work**

The STIFTUNG TANZ – Transition Zentrum Deutschland has been founded by Inka Atassi and Sabrina Sadowska on January 19, 2010 with private means and is located in Berlin. The object of the foundation is to support education and upbringing, community and professional education as well a charitable goal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dance. The foundation exclusively and directly serves the non-profit objective of supporting dancers in their artistic development and potential during their education, career and after their active dance career while moving to a new occupation (transition), of supporting them ideally and materially with all appropriate means ([www.stiftungtanz.com/?lang=en](http://www.stiftungtanz.com/?lang=en)). Many important personalities from arts,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are gathered in the board of the foundation such as John Neumeier from Hamburg Ballet as President of the Board of Trustees.

**2. Background and Genesis**

Before the initiation of the foundation there were different approaches to have the problems of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at the end of their career discussed on the political agenda. Unfortunately no one felt responsible to the subject neither the national organizations nor the federal states so-called Laender. It was after the reunion of both parts of Germany that dance got a new impulse in the 90ies and in 1998 the Federal German Ballet and Dance Theater Director Conference has been founded to have a working group start working on that subject. As a member of the board and head of the task force "Transition and social aspects" of the permanent Council of Dance Sabrina Sadowska commissioned Dr. Cornelia Dumcke with a study on Transition in Germany in summer 2007. The study was supported by the German Fund of Performing Art and different dance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in Germany, the general framework and need for action in the field of transition in dance was analyzed and evaluated in a country-wide survey of the independent and state-funded dance scene.

Next step to do was to bring all important representatives of institutions and ministries concerned with Transition of dancers in a conference together such as the labor office, education department, dancer's union, employer organization, social insurance for artist, dance medicine, accident and employ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artists pension fund and many more. The aim was to find out if the subject of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was recognized to be a n issue something has to be done for and if yes, who will take over the responsibility. As a result all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it was a subject to be taken serious, but no institution could take over. At the same time it was discussed that if a center will be founded all institution and ministries will cooperate with this new transition center. Due to those efforts the subject of Transition in the dance field got mentioned in the final report of the Enquete Commission on Culture in Germany of the

German Bundestag and was recommend that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should foster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study findings. [BT-D.16/7000, S. 321]

After launching the foundation the path was open to get initial support by Tanzplan Deutschland (an initiative of the German Federal Culture Foundation), by the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Culture and Media and by an agreement of the culture committee of the German Culture Minister Conference.

[www.stiftung-tanz.com](http://www.stiftung-tanz.com) 1

### 3. Service

#### 1. Information

Stiftung TANZ is offering information to all questions about a career re-orientation for free and confidential by phone, E-mail, Skype or personal counselling.

#### 2. Individual Support and Counselling

Stiftung TANZ is offering one to one counselling in Berlin and all around Germany to develop a job perspective in regard of personal interests, skills and emotional situation. We help to develop a time and financial schedule as well as help to find financial support. This includes also taking over 90% of the costs for external counselling. The foundation is offering help and support during the whole transition process as well as further on.

#### 3. Lectures and Workshops

Stiftung TANZ is offering lectures and counselling to all state or free lance dance companies, choreographic centre or High Schools with Dance Department in whole Germany. About four times a year the foundation organizes one or two days workshops throughout Germany with group sessions and individual work. A Jour Fix in Berlin helps to have regular meetings among dancers in transition to exchange their experience.

#### 4. Grants

Stiftung TANZ is granting scholarships to dance professionals in a transition to a new career after their active dance career. There is the possibility to apply three times a year for support for icourse and study fees, travel costs or childcare during your education. All professional dancers can apply who have at least seven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a permanent contract position or as a self-employed dancer. At least five years of professional work must be shown to have taken place in Germany. Non-EC citizens or Shengen citizens need an unlimited residence permit.

#### 5. Initiatives

Stiftung TANZ-Transition Center Germany has launched an extensive survey in cooperation with the Department Dance Medicine of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medicine Charite – University Medicine Berlin to help promoting the health of professional dancers, ballet masters, assistants, dance teachers and choreographers. This unique project is suppor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of Culture and Media as well as the Berlin Public Sector Accident Insures (UKB) and will help to have working accidents as well as health problems due to dance better recognized.

### 6. Networker and Advocacy for Transition

The Stiftung TANZ has become partner in all means concerning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of institution, ministries, political organizations to get more transparency and sensibility for the matter of transitio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 we are networking with all international transition centres abroad as well as counselling other initiatives abroad like in Poland or Czech Republic.

[www.stiftung-tanz.com](http://www.stiftung-tanz.com) 2

### 7. Mentoring

The Stiftung TANZ provides mentorship through dancers having passed successfully their transition process, through personalities in different occupations and branches and tries to sensitise employers to give dancers a chance in their business.

### 8. 5th Anniversary

More than 650 dancers have got help through the Foundation since opening the office in Berlin in August 2010. The office is employing two part times employees whereas one is psychologist with a theatre background.

There has been offering granted for more than 90.000,- Euro. The annual budget of the foundation is about 100.000,- Euro employing to part time employees. For the fifth anniversary many dance companies contribute to the fundraising with benefit galas such as: Hamburg Ballet, Stuttgart Ballet, Ballet of the Friedrichstadtpalast;

Tanztheater Kassel/Staatsheater Kassel, the Dancecompany Gießen, Mannheim and Heidelberg as well as the Bavarian State Ballet of Munic. This gives a lot of attention, support and publicity for the subject of Transition.

[www.stiftung-tanz.com](http://www.stiftung-tanz.com) 3

# Introduction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Korea

한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개



# In Hee Kim

Korea

L'Academie de Danse Classique Princess Grace in Monte Carlo  
Danced at Korean National Ballet and Universal Ballet as Principal Dancer  
Committee Member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General Director, Seoul Ballet Theater

김인희 / 한국

모나코 왕립발레학교 졸업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무용수 활동  
현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직업전환 및 직업개발 사업 현황

김인희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배경

2005년, 은퇴 후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현역 무용수로서 수명이 가장 짧은 발레단 단장들 사이에서 진행되던 중 박인자 이사장(전 국립발레단 단장)은 무용계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구성했다. 그 해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아래 프레스센터에서 ‘직업무용수, 은퇴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심포지엄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 결과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법인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후원회 결성을 통하여 일반인 후원회 가입을 늘려가고 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뿐만 아니라 경영,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15명의 이사와 10명의 자문위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3,000여명 무용수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업 -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퇴하는 전문무용수를 위한 직업전환 사업, 공연 중 발생한 상해 재활 및 예방지원 프로그램, 무용단과 무용수를 연결해주는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인 댄서스잡마켓 사업 등을 통하여 전문무용수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른 예술분야보다 빨리 찾아오는 전문무용수를 위해 직업개발과 직업전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직업개발]

전문무용수의 특성을 살려 다방면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 직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13개 분야의 직업개발을 진행하여 재활트레이너, 공연기획자, 무용교육자 및 지도자, 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진학, ABC 강사등의 직업에 전문무용수가 직업전환하여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무용재활트레이너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 자격연수, 헬튼크라이스 양성과정
- 공연전문가 : 예술의전당 공연기획 아카데미, 춤무아트홀 뮤지컬 아카데미
- 평론가 및 이론가 : 무용인 글쓰기 과정
- 무용지도자 : 커뮤니티댄스 지도자, 페리댄스 마스터 클래스, 바가노바 발레 지도자

#### [직업전환]

직업전환을 원하는 전문무용수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직업분야와 교육과정 제한없이 지원자가 직접 직업전환 목표와 학습계획을 세우면 심사를 거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2014년에 직업전환 및 개발 프로그램에 120여명의 무용예술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 [직업 개발 및 전환 컨설팅]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무용예술인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무용재활트레이너, 문화관광 해설사, 웃음치료사, 문화예술기획, 교육 콘텐츠 기획, 캘리그래퍼, 양초공예가, 뮤지컬 기획 및 제작, 해양 레저관련 연구원등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직업전환 성공케이스]

•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국립발레단 출신의 고일안 씨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로부터 ‘재활트레이너 강사’ 과정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직업전환에 성공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2009년부터 국립발레단 재활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자신의 무용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후배들에게 재활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 와이즈 발레단 출신 이위형씨와, 세컨드네이처 무용단 출신의 장원정씨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지원아래 무용수 재활트레이너로 직업전환을 했다. 현재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속 재활트레이너로서, 센터의 주요 사업인 무용단 직접 방문을 통한 상해 예방지원과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동처치실에서 재활트레이닝을 전담하고 있다.

• 한국무용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민지씨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학비지원을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관광정책과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서울발레시어터 출신 홍재명씨와 한국무용 프리랜서 출신 김영수씨는 ‘ABC 프로그램 강사양성’코스를 수료했다. 현재 춤무아트홀 <뮤지컬 전문 아카데미>의 안무가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 결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에 힘입어, 전문무용수의 은퇴 전·후 직업전환에 대한 대비와 인식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많이 확산되었다. 좀 더 많은 무용예술인이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무용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2015년 IOTPD 서울 총회 및 심포지엄에 일본과 중국, 홍콩 무용계의 주요한 인사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에서도 무용예술인들의 직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Career Transition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Hee Kim

###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2005, in-depth discussions took place on the career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after retirement among ballet troupe directors, whose career is the shortest from among dancers. Against this backdrop, Chair Park In-ja (former director of the Korean National Ballet) formed a group of key personnel in the dancing sector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On September 29, 2005, an international symposium was held at the Press Center.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symposium was on the theme, "What can professional dancers do after retirement?" Experts from Korea and abroad were invited to the symposium, which publicized the nee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on the career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This led to the official launch of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2007 after receipt of approval,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ack when it was launched in 2007. A supporters association was formed in 2012 and an increasing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are becomi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e Board of Directors (BOD) consists of 15 directors and 10 advisors, who are exper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ance, business management, and medicine. BOD members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major policies. The Center currently has around 3,000 dancers as its members.

### Programs of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 Focusing on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transition

With the ultimat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ncers,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offers such programs as the career transition program for retiring professional dancers, program on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injuries during performances, and the Dancers Job Market, which is an open audition program that connects dance companies with dancers. These programs support the activities of professional dancers. The Center is especially providing active support for the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transition program for professional dancers, who retire at an early age compared to other types of artists.

#### [Career development]

Through career development and support, the Center is helping professional dancers enter different professions by effectively leveraging their strengths as dancers. The Center's career development program covers 13 professions and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professional dancers can begin a new profession. These professions include a rehabilitation trainer, performance planner, dance educator and instructor, critic and columnist, and ABC lecturer, as well as admission to a school.

- Dance rehabilitation trainers: The Korea Athletic Trainer Association (KATA) AT qualification training, Feldenkrais training program
- Performance experts: Performance Planning Academy of the Seoul Arts Center, Musical Academy of the Chungmu Art Hall
- Critics and theorists: Writing program for dancers
- Dance instructors: Community dance instructor, Peridance Master Class, Vaganova ballet instructor

#### [Career transition]

To provide a greater number of choices in profession to professional dancers who are seeking a career transition,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to cover educational expenses after a screening process. Applicants are required to set a career transition target and study plan, without any restriction placed on the type of occupation or curriculum.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was provided to around 120 dancers in 2014 as part of the career transition and development program.

####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consulting]

Experts in various areas are providing consulting to dancers who are about to retire to help them choose a new occupation. Lectures will be held in 2015 by inviting experts in diverse fields, including dance rehabilitation trainers, culture and tourism guides, laugh therapists, culture and art planners, educational content planners, calligraphers, candle craftsmen, musical planning and production personnel, and researchers on marine leisure.

#### [Successful cases of career transition]

- As reported by various media outlets, Go Il-an, a former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Ballet, successfully accomplished a career transition by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covering the entire tuition for a rehabilitation trainer course. Go has been serving as a rehabilitation trainer at the Korean National Ballet since 2009 by effectively leveraging his experience as a dancer.
- Lee Wui-hyeong, who was formerly a member of the Wise Ballet Theater, and Jang Won-jeong, a former member of Second Nature, began a career as dancer rehabilitation trainers based on support from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As rehabilitation trainers affiliated with the Center, they take part in the injury prevention support program, a major program of the Center, by making visits to dancers, and are in charge of rehabilitation training at the Center's exercise treatment room.
- Lee Min-ji was a freelance Korean dancer before majoring in urban engineering. She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to cover tuition. She is taking a doctoral program in urban engineering at Yonsei University, and is a researcher at the Tourism Policy Division of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ong Jae-myeong, a former member of the Seoul Ballet Theatre, and Kim Yeong-soo, a freelance Korean dancer, completed the ABC Program Lecturer Training Course. They are teaching the choreographer course of the Professional Musical Academy of Chungmu Art Hall.

#### Conclusion

Thanks to the wide array of programs and support provided by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a substantially greater number of professional dancers are preparing themselves for a career transition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nd are becoming more aware of career transition. The Center hopes that more dancers become active in various occupations by receiving support based on the career transition program.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s the only organization of its kind in Asia. Major dance industry officials from Japan, China, and Hong Kong are attending the 2015 IOTPD Seoul General Assembly and symposium. The Center hopes that this event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throughout Asia that support dancers in their career transition.

# You will always be a dancer!

당신은 영원히 무용수입니다!



## Pierre-Marie Quéré

**France**

Graduated from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Lyon  
 Danced as a professional dancer at Lyon Opéra Ballet and Les Ballets de Monte Carlo  
 Graduated from business school in Marseille (Supported by Center National de la Danse\_France)  
 Worked as an Event manager on International events at LSO International group  
 2009 ~ Administrative Director of ESDC Rosella Hightower,  
 2012 ~ Administrative Director of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Danse de Marseille

### 피에르-마리 퀴레 / 프랑스

리옹 국립 예술 대학교 졸업  
 몬테카를로 발레단, 리옹국립발레단 활동  
 프랑스 무용수직업전환센터 지원을 받아, 마르세이유 비즈니스 스쿨 수료  
 LSO International Group에서 10년간 국제행사 이벤트 매니저 활동  
 2009 ~ 칸느 로젤라 하이타워 국립 무용학교 사무처장  
 2012 ~ 마르세이유 국립무용학교 사무처장

## 당신은 영원히 무용수입니다!

저는 무용수라는 제 직업의 미래에 대해 결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용수로서 처음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두 가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병역의 의무였고, 다른 하나는 무용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쉽게 해결되었지만(제대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민은 무용수 경력을 이어가는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나 친구들의 삶을 회고해보면 오늘날 무용수의 삶이 장단점 면에서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몇 가지 답을 알려드리자면,

행복한 무용수가 되세요. 그러면 무용수로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고 무용을 통해 얻는 모든 경험들을 즐기세요.

무용은 제가 아는 인생 최고의 학교입니다. 무용수로서 개발한 소질들은 다른 일을 할 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무용을 그만 둔 이후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용계 바깥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흥미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전환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과제는 아직 무용수일 때 무용계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직업전환이 핵심입니다. 무용수를 그만 두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과소평가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철저한 구직 활동 외에도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당신은 영원히 무용수입니다!

## You will always be a dancer!

**Pierre-Marie QUERE**

I never had any doubt on my professional future: I would become a dancer.

But as soon as I got my first contract as a dancer I had two preoccupations: my national military service and what will I do after dancing?

Whereas the 1st one was easily solved (I was discharged!) the second remained a preoccupation during my entire dancing career!

Today, if I look back on my own story or on my friends' when I am involved in the training of our school's students, I think that the life of dancers has remained the same in terms of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Here are the main answers I found from these experiences:

Be a happy dancer, and you will be a happy person after dancing. Enjoy every single experience in your dancing career, remaining aware of how lucky you are.

Dancing is one of the best schools of life that I know. The aptitudes you have developed as a dancer will become valuable assets in different working situation. Be proud of what you learnt!

In order to increase your chances to do something else after dancing, you have to know the world outside dancing, which offers so many possibilities and so many interesting people to meet. Creating your own life outside the world of dance, even when you are a dancer, is the 1st step towards reconversion.

Transition is key. To quit your position as a dancer and start a new career takes a lot of effort. Do not underestimate it and do prepare it properly. This will not only require a thorough jobsearch but also a deep reflexion on who you are.

And do not worry because whatever you become next.... You will always be a dancer!

# Dream Again!

다시 시작하는 끝



# Sun Hye Hur

Switzerland

Graduated from Dance Department, Kyungsoong University  
 Worked with well-known choreographers in Europe  
 (Massimo Furlan, Pilippe Saire, Nicole Seiler, Philippe Jamet, Luck Petton)  
 Received HP Formation a Geneva Diplom - Acupuncturist, Swedish Massage Trainer  
 (Supported by Association pour la Reconversion des Danseurs Professionnels, Swiss)  
 2014 ~ Chinese Medicine Acupuncturist, Swedish Massage Trainer at Cabinet Chinese Medical Clinic

허선혜 / 스위스

경성대학교 무용과 졸업  
 유럽 유수의 안무가들과 작품 활동  
 (Massimo Furlan, Pilippe Saire, Nicole Seiler, Philippe Jamet, Luck Petton 등)  
 스위스 무용수직업전환센터의 지원을 받아 중의학 침술 및 스웨디쉬 마사지 트레이너 HP Formation a Geneva 디플롬 이수  
 2014 ~ 스위스 Cabinet 한의원에서 침술사 및 스웨디시 마사지 트레이너로 활동





## 다시 시작하는 끝

### 허선헤

안녕하세요?

스위스 로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중의학의 침술과 전문 클래식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직업을 전환한 허선헤입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스위스 로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저의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허선헤는 누구인가?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스위스를 넘나들며 퍼포먼스, 창작예술 및 여러 분야의 종합 예술 공연의 프로 무용수로 20년간 일해 왔습니다. 2006년 스위스 로잔에서 결혼하면서 정착하였고 딸 솔란이가 지금 6살입니다. 저에게 춤이란 저의 잠재된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소중한 직업이며, 바로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 몸으로 말하다.

춤쟁이로 일생을 살 거라 생각했던 저에게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 36세가 되던 해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로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자유로웠던 몸짓은 한계에 접어들었고, 춤 작업을 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던 열정과 행복보다는 무대에서 춤을 추는 일이 의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춤은 저에게 몸으로 말하는 언어였기에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져갔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저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면 어떤 일을 찾아서 해야 하나 하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며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던 중 내린 결론은 "나는 몸을 쓰는 사람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나의 연결고리 RDP

나의 열정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목마름으로 고민하던 중에 같은 일을 하던 친구가 스위스 로잔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열게 되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무용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무용수들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야심 찬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졌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차례의 질문과 지원센터의 진심어린 조언으로 저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야이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 그것은 바로 '클래식 마사지 테라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연결하여 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에 중의학 침술자가 침을 시술하는 수업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냐는 조언을 받아 2달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작은 구멍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이거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중의학' 내가 찾는 또 다른 새로운 목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강렬함과 간절함이 당장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 같은 방향 다른 길...

4년 동안 많은 관찰과 실습을 하면서 저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와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되었고 침술과 테라피를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런 열정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중의학은 '천인 합일설'과 '음양오행설' 등 고대 중국인들의 우주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관념들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가장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양의 원리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음양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죠. 이렇게 깨진 음양의 조화를 바로잡고,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면서 기혈을 순환되게 돕는 것이 바로 중의학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의학 사상은 인간의 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저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자연의 진리와 인간의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정신을 치료하는 이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의 삶의 연장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 표현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

중의학과 테라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욱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는 무용수로 지낸 시간 동안 배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입니다. 춤을 추면서 몸으로 섬세하게 내면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촉각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정확한 동작의 반복적인 움직임은 바탕으로 춤을 추다보니 우리 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도 모르게 쌓여 온 것이지요.

또한 사람과 마주하는 것 즉 '소통'을 하는 점에서도 '테라피스트'와 '춤'은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늘 움직이면서 부딪치고 접촉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내부와 외부 간의 끊임없는 융합과 어우러짐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이런 인간의 육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소통이며 표현이기도 하지요.

현재 많은 의사들과 병원관계자들의 추천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용을 하면서 익혀온 저의 경험과 능력이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자연치유력을 증진시켜 재활에까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분 한분 치료하는 동안 온전히 집중하면서 진심어린 마음이 전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만과 독단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치료하는 사람, 공감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는 사람, 늘 공부하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진실한 테라피스트가 되도록 오늘도 노력하며 허선헤는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 제 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ream Again!

### Sun-Hye Hur

#### Greetings

My name is Heo Seon-hye, and I became an acupuncturist and professional classic massage therapist with the help of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 RDP in Lausanne, Switzerland. Before I begin my story,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for holding this meaningful event and for its invitation. I als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 RDP and my family for the support they have provided for me to study for four years.

#### Who is Sun-Hye Hur?

I was born in Busan. For twenty years, I took part in creative arts performances as well as synthetic art performances in France and Switzerland as a professional dancer. I got married in 2006 in Lausanne and my daughter, Sol-ran, is now six years old. To me, dancing was a precious occupation that enabled me to display the energy hidden inside me, revitalize myself, and demonstrate passion. Simply put, dancing meant everything to me.

####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body

I thought I would be a dancer for the rest of my life until I suffered an unexpected experience. In 2007, at the age of 36, my legs became paralyzed due to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My physical movements were bound by restrictions. Rather than feeling the sense of passion and happiness that I enjoyed before while dancing, I had to force myself to dance on stage as a duty.

Dancing w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a language for me. For this reason, the pain of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freely resulted in fear about the future. After suffering from this sense of fear and anxiety for several months, I became to realize that I had to discover a new path. As a person who was dedicated to spending the rest of her life as a dancer, I found it extremely difficult to start a new occupation.

I looked into several different paths, wondering what kind of work would be suitable for me if I didn't have the option of dancing anymore.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hat I am best at is bodily expression as a person who makes use of her body.

#### RDP, my link

I was intent on finding a new goal that would enable me to discover passion again when my friend opened a professional dancer support center in Lausanne, Switzerland. I learned that a great number of dancers were pondering over the same issue. I met dancers who were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at several social groups, and I became overwhelmed with the desire to begin my own grand project and developed confidence in myself. Some say that a crisis is also an opportunity. After asking questions on several occasions and receiving sincere advice from the support center, I was able to find a new path that would be suitable for me. It was an occupation that meant a new beginning and that allowed me to make use of my physical strengths. It was classic massage therapy.

I was thinking about another goal for myself in connection with this occupation, when it was suggested to me to take a class given by an acupuncturist of Chinese medicine on acupuncture. I was given an opportunity to take the class for two months. I experienced a new world with a sense of anticipation and excitement, and thought this was just the path I was looking for. I thus discovered another new goal for myself, which wa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at is based on Oriental philosophy. I was overflowing with a sense of earnestness and eagerness.

#### One direction, different paths

After many observations and practical training for four years, I learned about and marveled at physical and mental harmony and relevant mysterious aspects. I studied about acupuncture and therapy with greater passion, which is what enabled me to stand at where I am today.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flects the ancient Chinese people's view of the universe, including the "Unity of Heaven and Man theory" and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These concepts have become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for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 The Yin-Yang principle was applied to human beings, with the result that people began to regard the loss of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s the cause of diseas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s what brings back and recovers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nd helps blood circulation. Als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enabled 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what is not invisible on the human body. I became confident that the occupation would provide my life with greater value and meaning as a job that treats the body and mind based on natural essence and human philosophy.

#### My daily life is filled with expression

The reason why I am becoming increasingly confident that I will do well in the area of Chinese medicine and therapy as I study these subjects is because of the various experiences I gained as a dancer. As a dancer, I expressed the inner world with great detail, continually used my sense of touch to communicate, and engaged in precise, repetitive movements. This process enabled me to naturally develop the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the human body. I believe there is considerable relevance between therapy and dancing in the aspect of communication as well. The human body makes contact with others during movement, expresses emotion by means of touch, and becomes lively amid continued convergence and harmony between inner and external aspects. Making contact with the human body is a way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I sincerely hope that I can provide physical and emotional help to those who come to me based on referral by many doctors and hospitals. It gives me great meaning to effectively leverage the experience and skills I developed as a dancer to revitalize people's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nergy and to promote their natural healing power and rehabilitation. I am making an effort to deliver sincerity as I provide my full attention and concentration during each treatment. Each day I strive to become a therapist who is free from pride and authority, and who heals by listening to others' emotional messages, opens up to others to form emotional ties, and continually studies the area to deliver a sense of trust.

I hope my story helps people who come across difficulties in their lives to begin a new life. Thank you for your undivided attention.

# Flying High

더 높은 비상을 위하여



credit © Jason Bell

# Leanne Benjamin AM OBE

United Kingdom

Graduated from The Royal Ballet School, London  
1992 ~ 2013 Dancer with The Royal Ballet for 21 years, Principal for 20 years\*  
Graduated from Interior design at Chelsea College of Arts and Design  
(Supported by Dancers' Career Development)  
Interior Designer in U.K.

리안 벤자민 AM OBE / 영국

영국 로열발레 학교 졸업  
1992 ~ 2013 영국 로열발레단 수석 무용수 활동  
영국 무용수직업전환센터의 지원을 받아 첼시 디자인 스쿨 (Chelsea Arts and Design)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 더 높은 비상을 위하여

리안 벤자민 AM OBE



리안 벤자민은 20년간 로열발레단(The Royal Ballet)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한 뒤 2013년 7월 은퇴했습니다.

리안 벤자민은 16세의 나이에 고향인 호주를 떠나 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Upper School)에 진학했으며, 1980년에는 아델리느 즈네 금메달, 1981년에는 프리 드 로잔느(Prix de Lausanne)상을 수상했습니다. 졸업공연으로 왕립오페라하우스에서 지젤 역을 소화했으며, 같은 공연에서 조나단 코프가 알브레히트 역을 맡았습니다. 1983년에 새들러스 웰스 로열발레단에서 놀라운 기량을 선보여 1987년에 수석무용수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수석무용수로 피터 샤푸스가 감독하는 런던 페스티벌발레단에 입단하였으며, 1990년에는 베를린에 소재하며 역시 피터 샤푸스가 감독하는 도이체오페르발레단(Deutsche Oper Ballet)에 합류했습니다. 도이체 오페르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작품 '디퍼런트 드러머'를 위해 케네스 맥밀런과 협력했습니다.

1992년 앤소니 도웰이 감독으로 있는 로열발레단에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합류했으며, 마리 베스테라로서 맥밀런의 메이얼링으로 로열발레단에서의 데뷔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리고 1993년 수석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고전 발레작품의 주역뿐 아니라 웨인 맥그레거, 크리스토퍼 월던, 애슐리 페이지, 리엄 스칼렛, 앨라스테어 메리엇, 글렌 테틀리, 킬라 싸프, 데이빗 빈틀리, 킴 브랜스트롬, 마이클 코더, 가장 최근으로는 알렉세이 라트만 스키 등의 안무가가 본인을 위해 창조한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습니다. 맥밀런의 레퍼토리를 특히 잘 소화했던 리안 벤자민은 로열발레단 창단자들과 직접 작업한 경험이 있는 마지막 무용수들인 프레데릭 애쉬튼과 니네트 드 발로아와도 작업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 무용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훈장(OBE)을 받았으며, 로열발레단에서 활동한 경력만 20년이 넘습니다. 발레단의 역대 예술감독 8명 중 4명의 감독을 거쳤으며, 발레단 역사에 길이 남는 중요한 공연 다수에 출연했습니다.

리안 벤자민은 2014년 1월 크리티क्स 서클 드 발로아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아너즈에서는 공연예술, 특히 무용수이자 롤모델로서 보여준 발레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호주 국가훈장(Member of the Order of Australia)을 받았습니다.

리안 벤자민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제니퍼 커리 센터장과 함께 질의응답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리안 벤자민은 현재까지의 자신의 성과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여 여러분과 풍성한 공연 커리어에 대한 지혜를 나눌 것이며, 직업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영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용수로서 은퇴한 뒤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 Flying High

Leanne Benjamin AM OBE

Leanne Benjamin was a Principal Dancer with The Royal Ballet for 20 years, retiring in July 2013.

Leanne Benjamin joined The Royal Ballet Upper School from her home in Australia at the age of sixteen. In 1980 she won the Adeline Genée Gold Medal and in 1981 the Prix de Lausanne. At her graduation performance she danced the role of Giselle at The Royal Opera House partnered by Jonathan Cope as Albrecht. Leanne began what was to become a remarkable career at Sadlers Wells Royal Ballet in 1983 where she was promoted to Principal in 1987.

In 1988 Leanne joined London Festival Ballet as a Principal, and in 1990 she joined Deutsche Oper Ballet in Berlin both under the Directorship of Peter Schaufuss. It was during her time at Deutsche Oper Ballet that Leanne worked with Kenneth MacMillan on *Different Drummer*.

Leanne joined The Royal Ballet as a First Soloist under Anthony Dowell in 1992 and made her debut with the Company in MacMillan's *Mayerling* as Mary Vestera. She was promoted to Principal in 1993. Her career has seen her dance all the leading classical roles as well as having an exceptional number of roles created on her by choreographers including Wayne McGregor, Christopher Wheeldon, Ashley Page, Liam Scarlett, Alastair Marriott, Glen Tetley, Twyla Tharp, David Bintley, Kim Branstrop, Michael Corder and most recently Alexei Ratmansky. Excelling in the MacMillan repertory Leanne also worked with Frederick Ashton and Ninette De Valois, one of the last line of dancers to have first hand experience of working with the founders of The Royal Ballet.

Leanne was awarded an OBE in 2005 for Services to Dance and her career with The Royal Ballet alone has spanned more than two decades. She has danced under four of the Company's eight directors and appeared at many of the mile stone performances in the The Royal Ballet's history.

In January 2014, Leanne Benjamin was awarded the Critics' Circle de Valois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 and at the 2015 Australia Day Honours, Leanne was appointed a Member of the Order of Australia for significant service to the performing arts, particularly ballet, as a dancer and role model.

Leanne will be joined by Jennifer Curry, Executive Director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for a Q&A. Leanne will talk openly about her achievements to date, giving audience members an insight in to her prolific performance career. Leanne will discuss her career transition and how, with the support of Dancers' Career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she is pursuing her post-performance career.

# Many ways to become a veterinarian

수의사가 되는 다양한 방법



# Paul Waarts

**Netherlands**

Graduated from Dance Academy Arnhem  
Danced with several contemporary dance companies, Netherlands.(Dance group Kristina de Chatel, the Rotterdamse Dansgroep)  
Graduated from Law at the Vrije Universiteit, Amsterdam(Supported by Dutch 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  
Worked at Boekel de Nerée and Cleerdin & Hamer.  
2011 ~ Criminal Judge at the Court Midden-Nederland  
Numerous board and advisory positions in the cultural sector.

## 폴 워츠 / 네덜란드

Arnhem Dance Academy 졸업  
네덜란드 유수의 현대 무용단 활동 (Dance group Kristina de Chatel, the Rotterdamse Dansgroep등)  
네덜란드 무용수직업전환센터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Vrije University 법학과 졸업  
Boekel de Nerée and Cleerdin & Hamer 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  
2011 ~ 네덜란드 중앙법원 판사  
현 네덜란드 문화부분 법률자문으로 활동





## 수의사가 되는 다양한 방법

### 플 워츠



네 살 때부터 저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초청으로 무용수에서 판사로의 직업 전환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뭔가가 잘못 된 게 아닌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레 수업을 접한 것은 17살이었고, 그 전까지는 무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댄스 그룹에서 가족과 함께 몇 년 동안 춤을 춰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무용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때 내렸던 결정이 이후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레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10대 소년 두 명이 타이즈를 입은 채 하얀색 발레복을 입은 나이가 훨씬 어린 여학생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발레 수업을 듣는 남학생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나이가 어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희 또래에서는 드물었습니다. 플리에, 탄두, 바트리와 같은 발레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고, 발레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엇 때문에 것처럼 발레에 매료되었는지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주당 수업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친구가 발레 아카데미에 오디션을 보러 갈 것이라는 말을 했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아른헴의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전문 무용수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꿈은 여전히 수의사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지낸 1년 동안 무용은 단순한 취미에서 삶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용과 관련되어 있었고 점차 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무용수가 되면 어떻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봤던 공연은 그리츠티나 드 카텔 무용단의 미니멀 댄스 공연이었는데 공연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 무용단을 따라 다니며 공연이란 공연은 모두 봤고, 혹시라도 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용단에 연락을 했고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용단에 발을 디딘 후 1년이 지나서는 정식 계약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용단, 그리고 그 곳의 예술 감독과 장기적인 직업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 무용수로서의 시작 역시 같은 무용단, 같은 안무가와 함께였고, 그 이후로도 그들과 수 년을 함께 했습니다. 다른 안무기들과 작업을 하며 발전하기 위해 두 차례 그 곳을 떠나긴 했지만 매번 그리츠티나 드 카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극장에서 공연을 했고 해외 순회 공연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곳에서의 생활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전문 무용수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 직업이 평생을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히 다른 직업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텝과 안무 외에는 배운 것이 없었고 딱히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용수라는 직업에 끝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직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용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데, 제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무용계에서 무용 이외에 그 정도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르치는 것이나 안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용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로 안전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요, 제 친구들의 대부분이 무용수였고, 파트너 역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은 제 직업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저의 하루를 관리해주었습니다. 리허설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버스는 몇 시에 탑승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한번도 제 스스로 일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일정 관리를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 심지어는 새로운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 열정은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열정이란 무용계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춤에 대한 열정은 춤을 열정적으로 추게 합니다. 피곤하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열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면 춤을 추면서 느꼈던 열정,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이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에도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깨닫게 되자 전문 무용수가 아닌 다른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흥분시키고,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여러 방면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온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었고, 지적으로 도전 받고 싶었고, 처음 가졌던 꿈을 다시 이루고 싶었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환상을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다른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 무용수 초창기 때부터 이미 저는 예술가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또한 무용단 내에서 감독이 원하는 것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무용수들의 대변인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협상이나 토론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러한 스킬, 수단이 여러 직업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디서부터 선택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문에 나온 많은 직업 광고를 읽었고,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ですよ! 변호사가 된 저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저에게 변호사가 될만한 재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이 옳은 결정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평생 단 한번 밖에 오지 않는 기회처럼 여겼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직업상담사와 몇 차례에 걸쳐 상담을 했고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인들, 가족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용을 그만 두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공부를 위해 등록을 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8월 중순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잊지 못할 공연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2주 뒤에는 대학에서 학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흥분이 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좋아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기다려 줄까?', '내가 원한다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등등. 하지만 그럭저럭 하는 사이 공부에 즐거워졌고, 새로운 삶이 좋아졌습니다. 공부를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등을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에는 자신감을 느꼈고, 결국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속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간 성취했던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무용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 역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한 것들이 나머지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규율, 팀워크, 참을성, 공연, 인내, 스트레스나 고통, 피로 관리, 완벽주의 등등. 무용수에게 이러한 것들은 일상 생활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무용수 재교육 프로그램

제가 이처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 무용수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학업 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매월 나오는 실업급여 외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 받았습니다. 교육비, 교재비, 재료비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프로그램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돈 걱정을 많이 하지 않고 4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더라도 바로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항상 걱정을 했지만 최고의 로펌에 변호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행정법과 형사법을 공부했으나 변호사가 된 이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형사법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했고, 처음 일을 시작했던 안전한 직장을 떠나 규모는 훨씬 작지만 형사법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 중 한 명은 예술가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창의적이고, 열정이 넘쳤으며, 형사법에 전념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면서 온 마음을 바쳐 일할 수만 있다면 어느 분야가 됐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열정을 찾았고, 무용계를 그리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무용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무용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에게는 끔찍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말이 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킬과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변호사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직업 전환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한 직장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번의 경우엔 과거 무용계를 떠났던 경험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같은

법조계에서 직장을 다시 구해서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변화란 반드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선하고 또 다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전문 판사로서 일을 시작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 찾은 이 직업을 좋아하며, 새로운 직업 전환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직 무용가입니다. 마지막 공연을 한 것이 무려 17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무용은 여전히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용 자체라기 보다는 무용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문 무용수 시절 개발했던 스킬들을 현재 직업에서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에 익숙하고, 한 팀으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과 자산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수의사로서 이러한 스킬을 사용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마 무용을 그만 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과 동일한 의문점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질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해지는지 탐색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노동 시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댄스 스튜디오나 무대 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세상은 훨씬 넓고 흥미진진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치시는 분들, 그리고 무용수들을 책임지시는 소속사 관계자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무용수들의 현재 권익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용계를 떠난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용계를 떠난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위한 지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용이라는 직업을 시작하는 순간 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용 경력을 이어가는 동안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곧 예산을 의미합니다.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줘야 하고, 생계도 일부 지원해줘야 하며, 전문가 지도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유능하고, 근면하며, 헌신적인 노동력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금은 금방 회수될 것입니다!

## Many ways to become a veterinarian

### Paul Waarts

Since I was four years old I wanted to become a veterinarian. And here I am today, invited by the Dancer Career Development Center to talk to you about my career transition from dancer to a judge. You could say that something must have gone wrong since I did not succeed to fulfil my dream to become that veterinarian.

At the age of seventeen I did my very first ballet class and until that day I had never had a great interest in dance at all. A friend of mine, who danced already for many years with his family in an Indonesian Dance group, asked me to join him and so I did. Looking In retrospect I can tell you that that decision has been very important for any further step I have done in my life so far.

And there we stood; two adolescent boys in tights without any experience at all amongst much younger girls with their white tutus. As it was very common in those days there were hardly boys in ballet class, maybe some younger ones but definitely not of our age. We started with our first plies, tendus, batteries and so on and in some ways I realised that ballet was going to change my life. Until today I can't say why I got so taken away but it happened and I started to do more and more classes a week. After a couple of months my friend told me he was going to audition for the ballet academy and I Joined him again and we both started with the academy in Arnhem. At that time it was a big adventure. I started to discover a totally new world, although I did not think of a professional career as a dancer yet; I still wanted to become that veterinarian.

Somewhere during my first year at the academy the meaning of dance changed from being a hobby to a way of life. Everything and everyone around me was dance and I started to look at it more and more seriously. Instead of considering it a joke I started to wonder what it would be like to be a professional dancer.

The very first dance performance I had ever seen was a minimal dance performance by Company Krisztina de Châtel and I was totally blown away by it. Since that day I followed the company, saw all their shows and I was determined to find out if I could get a job with them. I contacted them and during my last year I started to work as an apprentice. I had a foot in the door and a year later I was offered an official contract! It was the beginning of a long term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nd its artistic director.

It was also in that company and with that choreographer I started my professional career and stayed there for many years. Because I wanted to look also further I left that company twice to work with other choreographers but came back every time to Krisztina de Châtel, simply because I liked her work the most. So I performed for ten years in almost every theatre in The Netherlands and we toured several times abroad. I enjoyed every day of it.

From the day I decided to become a professional dancer I also realised that that was not going to last forever. Of course I didn't dare to think of another career in the beginning since I knew – although I thought I knew – that I couldn't do anything else because I hadn't learn anything else besides my steps and choreographies.

It took me a while to realise that there was going to be that inevitable end to my dancing career. I started to understand that I had to think of options. I needed to focus on another career in order not to miss the train. But where to start? Soon I realised that dance had brought me a lot and fulfilled my day but I also realised that there was no other job in the dance world that would give me the same fulfilment as in dance itself. I was not interested in teaching or choreographing.

That was scary . It meant that I had not only to leave dance itself but also this safe environment where I had spent my life until that time. Almost all my friends were dancers and also my partner worked in the dance field. The way how I spent my days was determined by my profession. There were always people who organized my day. They told me where and when I had to rehearse or where to perform and at what time I had to get in the buss. I realised that I never had to arrange something myself and suddenly I had to do it all myself. Surprisingly enough the idea that I would get this new liberty, excited me. I started looking forward to organize my own schedules and take my own decisions. It was obvious I was ready for the next step or maybe I should say the next (big) jump.

### Passion only for artists?

Passion is a very common expression in dance. You dance passionate, because of the passion for dance you dance, the passion keeps you going although you may be tired or even injured and so on. Although I can't really describe what that passion is, I realised that I had to find another career in which I could find that same passion or maybe the same kind of commitment again. I discovered that passion is not just for artists. There are also passionate people in any other profession.

When I realized that it seemed to become a lot easier to decide what I could do after my dancing career. A whole world opened to me when I realised that I could choose from many directions that would excite me, that potentially would give me similar satisfaction.

For me it was clear that I wanted to study again, to be intellectually challenged and I wanted to make the first choice for the second time.

Again I started to fantasise of becoming a veterinarian. However I also had doubts since there were so many other options. Already from the beginning of my dance career I had been an active member of the Artists Union. Also I had always been the spokesman on behalf of the dancers in the company whenever they wanted something else than the direction wanted. I found out that I love to negotiate and to debate and discovered that these skills or tools are usable in many jobs. This knowledge was a start but I still had no idea where to choose from. I started to talk with many people about their jobs and read many adds for jobs in the papers and found out what interested me and what didn't.

And some day Eureka: Law it was! I could picture myself as a lawyer. However I had no idea what the daily life of a lawyer looked like nor did I know if I would be talented enough to become one. I felt very strongly that my choice had to be the right one. It seemed to be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What if I started a new study and would not succeed?

Therefore I had a couple of talks with a career counsellor who helped me enormously to take the decision and of course I had many more talks with all my friends and family. I enrolled myself in the law studies while I was still dancing and noticed that I couldn't wait. I was ready to leave this safe world.

Mid-august 1997 I did my last performance. It became a memorable one, because everyone around m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the last one and they all were there. Two weeks later I sat in the college banks and started my student life. Excited but also scared. I had all these questions; am I too old, how am I going to make a living, what if I can't move, what if I don't like this, who is waiting for me, can I go back in case I want to, and so on and so forth. But in the meantime I started to love my studies and even more, my new life. I could make my own decisions when and where I was going to study or not. I felt more confident when my studies went very well and it turned out to be that I was one of the better students. Also in those days I was able to look back and actually to appreciate what I had done till so far. Like most dancers do I was never satisfied with what I did, it was never good enough. But I started to realise that I had learned so much from my dancing career and that I could benefit from all that for the rest of my life. What to think about discipline, team work, endurance, performing, perseverance, dealing with stress or pain or fatigue, perfectionism and so on. For dancers this is all daily practice and considered very normal but believe me it is not!

#### **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

That I was able to study was due to the help of the Dutch 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 During my study time the program provided a surplus on top of the monthly unemployment benefit that I received from social securities. Also the program paid all my study costs like tuition fees, books, material etc. Through this help I did not need to worry too much about my financial situation and enabled me to finish my studies in four years. Although I had always worried that finding a job once I would have graduated would probably be difficult because of my age I succeeded to find a job as a lawyer quite easily at a top law firm.

During my studies I had chosen for administration law and criminal law but as a lawyer I had to make a choice again. I decided to specialise in criminal law and as a consequence I had to leave the safety of the firm where I had started to work. I joined a much smaller and specialised company that had a great reput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One of the founders of this company was very comparable with an artist, loving what he was doing, creative, passionate and very much dedicated to criminal law. He made me realise that it doesn't matter in what field you are working to become happy as long as you do your job with all your heart. And so I did. I realised that I had found a new passion and no reasons at all to miss the dance world. Although there has not been a single day I don't think a moment of dance it is, surprisingly enough, very easy to live without it. I know that for some or probably most of you this might be a nightmare but just like me, all of you have more skills than the ones you move with. I do not want to make it sound easier than it is, but it is just a matter of recognising the skills and competences that you already have and develop those.

After ten years of being a lawyer during which I got more and more successful I was ready for my again a new step in my career. Once more I left the safety of a company that I worked for but this time it was very different then when I stopped dancing. Not so much because I applied again for a job in the juridical area but because I

had learned from my earlier choices that changing is not necessarily scary but can be refreshing and fulfilling as well. Since three and a half years now I am working as a judge, specialised in criminal law and again I like my new job very much and am very pleased with the new transition.

I am also still a former dancer. Although it has been more than seventeen years ago when I did my last performance dance is still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Not so much the dancing itself but much more all the things that I gained from it. In my current job I use every day the skills that I developed in my dance career. I am very aware of body language and I know what it means to work in a team. These skills and assets turned out to be of great value. And maybe someday I can use those skills as a veterinarian. Never stop dreaming!

Some of you may be in the process now of thinking to stop dancing and may have the same questions and insecurities I have had. I sincerely hope that my story will inspire you to take the right steps. My advice would be to explore what your qualities are, what you are good in and find out what makes you happy. Do not get distracted by what other people say that is good for you or by the labour market. The world around us is changing continuousl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has changed every one's daily life we are now in the middle of a technological revolution. We simply do not know how the world will look like in ten years from now. Therefore it makes no sense to let your choices depend of what people think the world might look like in the future. What you do know is what makes you happy. Think big; the world is much bigger and much more interesting than the world as you have experienced it during all those years in the dance studio and on stage.

To those who work with dance students and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ancers in the companies I would like to say that all of you have a responsibility not only for the benefit of the current dancers but also for the lives after their dance careers. At the end of the day every single dancer has to decide his or herself what he or she wants to do after their dance career but they have to be guided in and prepared for that process. From the beginning of every dance career there has to be also some focus on the end of the career. Instead of waiting till the inevitable end I find it much healthier if people make the step for transition a part of their dance career. This also means that policymakers have a duty to do. They have to provide programs for transition, which means money. Studies have to be paid, some support for living and guidance by professionals have to be provided. And if this kind of system can be made you will see that you get a group of talented, hardworking and dedicated employees in every field on the labour market. The money will be easily paid back!

opens up to others to form emotional ties, and continually studies the area to deliver a sense of trust.

I hope my story helps people who come across difficulties in their lives to begin a new life. Thank you for your undivided attention.





무용월간 몸 5월호 발체



##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해 고민하다

무용수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하고, 때론 두렵기도 하다. 전문무용수로 오랜 시간 활동하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리안 벤자민과 폴 워츠로부터 직업전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들었다.

글 임수진 **사진제공**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무용월간지 「뭉」 5월호 기사

**리안 벤자민** Leanne Benjamin AM OBE

### 로얄발레단의 수석무용수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언제 처음 무용을 시작했고, 무용수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

건기 시작했을 때부터 춤을 쳤다. 1983년 새들러스웰스 발레단(현 로얄발레단)에 입단해 2013년에 은퇴를 했으니, 30년이라는 긴 시간 춤을 쳤다.

**은퇴 시기가 언제였나**

사실 꽤 오랜시간 동안 은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좋은 배역이 들어오고, 좋은 리뷰가 실리더라. 참 행운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엉덩이에 통증이 지속적인 느껴졌고 검사 결과 연골이 닳아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길로 나는 은퇴를 결심했다. 우연하게도 내 첫 데뷔작인 「마이얼링」을 내 은퇴작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그후 첼시예술대학(Chelsea college of Arts and Design)에 입학했다. 원래 디자인에 재능이 있었나 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다. 30년간 발레리나로 활동하면서 몇몇 소품들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꽤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건축설계 학위를 받기 위해 학교에 진학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첼시예술대학을 통해 이 분야의 언어를 배우고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영국 무용수지원센터(Dancers' Career Development)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나**

학위를 받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 일반적으로 무용수지원센터는 영국의 모든 무용수들에게 직업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컨설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역시 센터의 후원이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직업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

**발레리나에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과정을 들려달라**

사실 은퇴를 하기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퇴 몇 달 전부터는 첼시 대학에서 개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무용단 생활과 병행했기에 쉽지 않았지만, 매우 신나는 과정이었다. 직업 전환을 함에 있어 시간적 낭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은퇴 후 곧바로 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나**

우습게도, 네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겐 큰 도전이었다. 30년 동안 춤추는 것을 직업으로 갖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 뿐만 아니라 지적인 사고, 밤샘 작업을 비롯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것이 그동안 했던과는 다른 새로운 언어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발레리나로서의 경험이 현재 어떤 도움을 주나**

운이 좋게도, 나는 발레리나로서 훌륭한 디자이너와 예술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늘 세트와 의상, 소품들과 함께했으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겠나. 또한 무용수로서 주의력이 좋았던 것이 현재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무용수로서 늘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 점, 그리고 팀으로 일했던 점이 디자인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신처럼 은퇴 후 다른 직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흔히 있나**

그렇지 않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경험한 사람이 은퇴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내 경우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폴 워츠** Paul Waarts

### 무용수로서의 10년, 그 후 변호사가 되기까지



**언제 처음 무용을 시작했고, 무용수로 활동한 기간이 얼마인가**

열일곱 살 때, 친구를 따라 우연히 발레수업을 듣게 되었다. 얼마 후 친구와 함께 무용 아카데미 오디션을 봤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첫 번째 본 무용 공연이 크리스티나 드 샤텔(Krisztina de Chatel)의 작품이었다. 그 공연에 반해 그녀의 작품을 모두 찾아봤고, 결국 무용단에 오디션을 봐 입단했다. 그곳에서 10여 년간 무용수로 활동을 했다.

**무용수로서의 삶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사실 나는 처음 내가 무용수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동시에 무용수로서의 직업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용수로 활동하는 동안, 내 생활은 오직 무용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무용수로서의 삶을 접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그때부터 나는 진지하게 다른 직업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너무 늦기 전에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용을 그만두고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10여 년 간의 무용수 생활 후, 의외의 선택이다. 원래부터 변호사의 꿈이 있었던 건가**

어렸을 적 꿈은 수의사였다. 그래서 다시 수의사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 무용 외에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 흥분되고 신이 났다. 무용계 밖의 세상이 나를 향해 열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성향과 비교하며 리스트를 만들어갔다. 특히 나는 무용단 내에서 무용수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다. 예술가조합에서도 활동을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협상을 하기 위해 논쟁하는 과정을 좋아하고, 그 분야에 꽤 재능이 있더라. 곧 나는 변호사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었다. 만약 새로운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가족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내 꿈을 준비해나갔다.

**변호사의 꿈을 이룬 후, 다시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무용수를 그만둔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 들려 달라**

무용단에서 마지막 공연을 갖고, 그로부터 2주 후부터 법대생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내 머릿속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내 나이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혹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분야가 내 적성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다시 무용계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쩌나 등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곧 내 새로운 삶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꽤 우등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졸업 후 나는 가장 유명

한 로펌에 입사했다. 그 후 몇 년 후 형법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로펌으로 이직해 그곳에서 10년간 일했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로운 꿈에 도전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판사가 되었다. 무용을 그만뒀을 때처럼, 내게 직업 전환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자 새 삶과 만족감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용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덜란드 무용수재교육센터(Dutch 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센터로부터 학비, 교재비 등을 모두 지원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내가 높은 수준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덕분에 나는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4년간의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현재의 직업에 있어 과거 무용수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도움을 주나**

스트레스를 비롯해 신체적 부상, 완벽주의에 대한 결벽 등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했고 단체 생활, 팀워크, 규율, 그리고 인내심에 대해 배웠다. 무용수에게 이러한 요소들은 매일 마주하는 것이기에 나는 당연하게만 여겼었는데, 무용계 밖에 나와 보니 그렇지 않더라. 또한 나는 일을 함에 있어 신체적 언어를 중요시 한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무용수의 삶을 접고,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한다면**

나는 무용 외의 새로운 열정을 내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물론 변호사, 판사 일을 하면서도 나는 무용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무용을 직접 하지 않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아마 많은 이들이 무용계를 떠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쉽기 만 한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해 그것을 외면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무용 외에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스스로를 잘 관찰해봐라. 세상은 무대 위와 연습실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이다. 뿐만 아니라 무용교육자와 정책담당자들도 무용수들의 현재만큼 은퇴 후의 삶도 늘 고려해야한다. 무용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 것 외에,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것 역시 무용수의 삶의 일부부터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5월 30일(토)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리안 벤자민과 폴 워츠 등이 참석하는 무용수 직업전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 무대에서 춤추던 무용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일시** | 4월 22일 (수) 오후 4시 **장소** | 신사동 가로수길 에이미초코 **사회** | 임수진 본지 편집장  
**참석자** | 박귀섭 전 국립발레단 단원·프리랜서 사진가  
 신채민 전 경기도립무용단 단원·현 드 렉스(케어터링 & 푸드스타일링 전문회사)대표  
 이위형 전 와이즈발레단 객원무용수·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속 재활트레이너  
**정리** | 손예은 본지 기자 **사진** | 최인호

무용은 전문적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그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 무용을 전공하고 프로무용수로서 활동한 사람들 대다수가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춤춰왔다. 높은 전문성 덕분에 낫대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갑자기 무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무용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이제 뭐 하지'라는 말이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유달리 수명이 짧고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 이달 좌담에서는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주제로 3인의 '전(前) 전문무용수'들을 만났다.



**임수진** 먼저 각자 하고 계신 일이나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위형** 2년 전부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무용수 재활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용단에 한 달에 평균 10번 정도씩 파견 나가 무용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재활치료를 하거나 재활운동을 도와 공연 전 상해예방을 위한 처치를 해요. 현재 국립무용단이나 서울시무용단 혹은 민간무용단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나가는 식입니다. 그후 무용수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으면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내에 있는 처치실에서 운동도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또 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 소속 재활트레이너이면서, 개인적으로는 퍼스널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요.

**박귀섭** 저는 2007년부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분야는 무용 쪽이고요. 패션, 광고 등 인맥이 닿으면 왔다갔다하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죠.

**신채민** 케어터링 회사를 운영합니다. VIP 행사 및 파티, 각종 기업행사 및 귀빈행사 그리고 브랜드 런칭쇼 등을 전담하고 있죠. 단순한 파티음식 준비를 넘어서 정교한 푸드스타일링과 행사기획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무용수 그만두고 새 동지를 틀다

**임수진** 세 분 모두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 다른 쪽으로 직업을 전환하셨죠. 무용수로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을 텐데요. 무용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신채민** 경기도립무용단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무용을 그만 두고 제가 18년간 열정으로 무용 삶을 산 것처럼 또 다른 분야에 이와 같은 열정을 쏟아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삶을 시작하고자 한 거죠. 그동안 무용을 하면서 먹는 데 제약을 느끼는 한편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컸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면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또 다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박귀섭** 호기심이 많았어요. 국립발레단에 1년 정도 있으면서 고민을 했죠. 좋은 배역을 맡을지는 몰라도, 급어는 여전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패션, 영업, 사진 그리고 친구들과 사업 아이템도 만드는 등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중 저와 가장 잘 맞는 게 사진 같았죠. 그 과정에서 물론 발레단과도, 부모님과도 트러블이 있었지만 1년 뒤에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 무작정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무용과 사진이 연계되면서 저만의 작품을 만들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위형** 학생 시절 와이즈발레단의 객원무용수로 활동 중에 당한 부상으로 무용을 못하게 되었어요. 무용동작을 하다가 다친 것은 아니고요, 스트레칭 중에 삼각대에 올려져 있던 스피커가 발목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다행히도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당시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무리하게 했어요. 통증의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한의원에서 피도 뽑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나니 발바닥이 아구공의 반만큼 부었다군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뿐이었고, 저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부상이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만 갔죠. 얼른 제 힘으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1년간 그렇게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대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셈이 되었어요. 일반 피트니스가 아니라 서울클럽이라는 멤버십클럽에 다니면서 꽤 좋은 곳에 자리를 잡기도 했죠.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더 이상 아파서 무용을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쳤을 때 곧바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했다면 저는 지금도 무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무용을 하다 다쳤는데, 올바른 처치를 못해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무용수들이 마주한 환경적·경제적 어려움

**임수진** 개인적인 이유들이 물론 가장 결정적이었겠지만, 직업으로서 무용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었겠죠.

**박귀섭** 지금 발레 무용수로 활동하고 나온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선생님, 레슨, 강사, 학원 원장 등 대부분 비슷한 길로 나가죠.

**이위형**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당시 무용수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국립발레단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만약 들어갔더라도 남자로선 크게 만족을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향을 틀었고, 지금의 생활에 오히려 만족해요.



**신채민** 무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그중 하나였죠. 무용과에 진학하기 위해, 또는 무용단에 입단하기 위해 수년간 특화된 교육을 받지만 그 교육은 오직 무용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었고, 그 길은 생각보다 짧아 퇴직 이후 사회로 나왔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다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무용교육이 이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다각화된다면 많은 무용수들이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수진** 많은 인재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중, 예고, 대학교육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전문무용인으로 성장해야 할 때, 현실의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이들이 무용계를 떠나고 있죠.

**박귀섭**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이죠. 어떤 일을 하든 지기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무용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무용단에



## 스페셜 좌담

입단하는 것처럼, 사회에 나올 때도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신채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용수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트레이닝의 시간을 거치죠. 것처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성장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가치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위형** 무용을 하면 무용밖에 못해요. 시간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죠. 현재는 제 시간도 많고,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죠. 소득도 훨씬 낫다고 봐요. 가끔 춤이 추고 싶어서 취미로 수업을 듣긴 했지만 אין 통증이 다시 느껴지면서 무용을 하고 싶단 생각은 안 들어요.

**임수진** 경제적인 측면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무용수라는 직업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무용계를 떠나기를 주저했을까요?

**이위형** 저는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2천4백만 원 정도였어요. 월 170-180만 원 선으로 받은 돈이죠.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었어요. 지금은 열심히 일해 더 나아졌고요. 무용단에서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크게 만족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채민** 무용수로서 있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복지도 괜찮았고, 만족하며 살았죠. 간혹 남자 선배들을 볼 땐 제가 오히려 걱정할 정도긴 했어요. 그래서 연차가 있는 남자 선배님들은 부업을 시작하기도 하는 듯 했고요. 무용단 원이라는 건 단순히 일이 아니라 예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박귀섭** 발레단 중에서는 국립발레단이 현재 복지나 급여가 가장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죠.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각자의 급여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무엇보다 무용수는 수명이 짧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죠.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못 버틸 수도 있지요.

### 남들 모르는 직업전환 과정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수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요. 겪으셨던 과정들을 들려주세요.



**박귀섭** 지금은 안정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진가로서 사회를 마주했을 때 무용과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붙잡은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진 선생님의 라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저의 배경이 못미더운지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의 포트폴리오도 많이 쌓여 무용을 전공했다는 게 장점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니 다행이죠. 그렇지만 중간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저는 발레단을 나와서 무작정 부딪쳤어요. 하지만 후배들에게는 절대 저처럼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운도 정

말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항상 언론매체에서 노출되는 부분은 성공적이고 화려한 모습뿐이라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채민** 처음에는 새로운 일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용은 제가 지금 하게 된 사업의 밑그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용수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성공적인 작품을 올리기 위해 체력관리는 물론 기량향상을 위한 연습 등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저도 18년 '무용 삶'의 끝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두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무용수 생활을 통해 얻은 인내력과 지구력을 제 생활에 적용한 것이 사업 초기의 두려움이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박귀섭** 무용수일 때 좋은 점은 오로지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주나 왕자 스타일이 많죠. 그 좁은 곳에서 나와 보니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어요.

**임수진**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위형 씨는 선수트레이너가 되기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위형** 저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입장입니다. 예전에 이 센터에서 AT라는 선수트레이너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10명에게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인데, 체육계에서 가장 웰리티도 높고, 체육 전공자가 아니면 절대 딸 수 없는 그들만의 것이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따지 못해요. 그것을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기회를 줘서 저는 2013년에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무용재활 트레이너 교육과정을 수료 받았죠. 1기생이었어요. 그중 현재는 저를 포함해 두 명만 남았고요, 2기생은 전부 나갔어요. 비유하자면,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문제가 됐고, 결국 올해부터는 그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저로서는 전문무용수 지원센터가 고마운 곳이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박귀섭** 저는 안타깝게도 조금 늦게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해 알게 됐었어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결혼도 한 상태라, 지원하지 못했어요. 2년 전에만 알았다더라면 바로 지원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은 곳이라면 동료 무용수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진은 세트나 조명 등 장비에 대한 부담이 큼니다. 저는 그중 동료 무용수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다들 선뜻 나서주었죠. 분명 사람마다 각자의 재산이 있지요. 저에게는 그들이 정말 큰 재산이었어요.

**신채민** 저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존재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면 은퇴를 준비하는 무용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현 세대의 고민

**임수진** 특히 요즘 세대는 직업전환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용계가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 무용계에 남아 있는 동료들의 경우, 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신채민** 특히 남자 무용수들의 경우 미래 또는 결혼에 대한 고민거리가 많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 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또 늘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으로 움직이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무용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무용수들도 많이 봤어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경제적인 부분이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한국의 무용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들의 예술활동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귀섭** 일단 저도 새로운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발레단에 있는 남성들은 30대가 넘어가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죠.

**이위형** 무용단에 파견 나가면 만나게 되고 따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지 물어보죠. 발레 무용수들 중에서도 국립발레단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프리랜서로 공연을 하는데, 공연수당은 안 나오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수입과 은퇴 준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커 보입니다.

**신채민** 은퇴준비는 어떤 직업이든 다 해야 하지만, 특히 무용수는 직업적 수명이 짧고 은퇴 시기가 너무 빠르다보니 더 고민이 큼니다.

### 무용수 직업전환 시간과 노력 투자는 필수

**임수진** 무용수의 길을 접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동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위형** 저는 학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해요. 사실 무용과라는 건 학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잘 헤쳐나기야 하죠. 한편 다친 게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이미 저는 춤을 못 춘다는 것이 대놓고 드러났기 때문에 저를 공연에서 쓰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신채민** 공감합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과정이 값지기도 하지만, 한편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예술가나 무용가가 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 말이에요. 무용만 하던 사람들은 특히나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해요. 한 번 깨져봐야 성장을 합니다. 무용의 동작 하나 하나도 수많은 실패를 거치고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거잖아요.

**박귀섭** 이미 언급했지만, '중간과정을 보라'는 말을 실제로도 가장 많이 해요. 저는 성공한 인물 사례를 볼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보다는 어떤 중간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찾아봅니다. 그 우여곡절을 알아야 하고, 힘들 때 그것들을 보면서 위로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일단 도전하라'예요. 뭐가 되었든 사회에 나왔을 때 부딪쳐봐야 해요. 저도 잘 몰라서 크게 돈을 잃은 적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 실패도 해보고, 또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 앞으로의 계획

**임수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이위형** 저는 이제껏 혼자만 일을 해왔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알아서 터득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어서 트레이닝 팀을 만들고 싶어요. 한두 명씩 힘을 합쳐 무용뿐만 아니라 뮤지컬 등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석사과정을 마치고 무용과 학생들에게 해부학 수업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수진** 국내 무용단에서 트레이너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이위형** 그 필요성을 알아도 아직 나라에서 무용단에게 트레이너를 공식적으로 채용하도록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트레이너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무용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무용재활트레이너를 마시지사 정도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 그것을 깨뜨릴 책임감도 느껴요.

**신채민** 무용수들은 아직까지 무용을 하니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따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따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클 것 같아요.

**이위형** 이제까지는 많은 무용가들이 별도의 트레이닝 없이 해왔기 때문에 단번에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죠.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아까 말했듯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3-4명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채민** 한국에서 드 렉스(케이터링 및 푸드스타일링 회사)를 시작하고 운영한지 5년이 채 안 되었지만,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투자 제의가 들어와 중국 상하이에 F&B(Food & Beverage) 이와 관련한 합작법인을 설립 중에 있어요. 중국은 현재 한국음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외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현지 F&B 브랜드개발 및 컨설팅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박귀섭** 제 계획은 우선 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연출해보고 싶어요. 퍼포먼스나 전시를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 해외 갤러리에서 작업하고 싶어요. 우선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거고요. 또 무용수들과 함께 광고 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할 거예요. 광고주 쪽도 이제는 무용수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모델만 다루다가 무용수도 끌어들이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무용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사진은 정말 쉽게 퍼지고 빠르게 보급돼요. 순환과 흐름이 빠르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조금씩 다져가면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무용수 친구들도 부업이 생기고, 무용은 무용대로 세상에 알려지죠. 저는 무용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원-윈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수진**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해 2007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으로, 3000여명의 무용예술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퇴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환 사업, 공연 중 발생한 상해 재활 및 예방지원 프로그램, 무용단과 무용수를 연결해주는 공개오디션인 댄서스잡마켓 사업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권위 있는 분들을 컨설턴트로 모셔, 무용예술인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무용예술의 발전에 동참을 자처하시는 저명인사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야를 담당, 총 13인의 컨설턴트가 예술단체 경영, 기금 조성 및 세무, 운영, 공연 기획 및 기술, 의학, 법률, 학술 분야에 상담을 맡고 계십니다.

About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s a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07 for welfare and career development of dancers, and over 3,000 dancers have joined the Center as members. The Center protects rights and interests of dancers, and supports activities of dancers through the career transition program for post-performance career development, the rehabilitation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 and the dancers' job market program which provides an open audition for dance companies and dancers.

The Center has also invited renowned leaders of various sectors of the society as consultants, and provided the venue of conversation where dancers can seek advices and successfully overcome difficulties in post-performance career transition. A total of 13 consultants who have intended to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dance are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management of arts organizations, fund raising, taxation, operation, performance production, performance-related skills, medicine, law and academia.



## 2015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현황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록 무용수  
약 3,000여명

◎ 이사회 현황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14인, 감사 1인

◎ 2015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및 사업 진행 내용

- IOTP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국제총회 개최  
5월31일 ~ 6월 2일 명동 신일빌딩 서울사이버대학교 회의실  
IOTPD는 무용수직업전환국제기구로서 총 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참관국\_ 중국, 일본, 홍콩, 벨기에

- 무용인 한마음축제 개최  
2015년 5월 31일(일) 유니버설아트센터

- 댄서스잡마켓 개최  
상반기: 2015년 2월 25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발레실  
참여: 전문무용단체 49단체/ 무용수 203명  
하반기: 2015년 8월 25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발레실

- 2015년 상해예방 지원 중  
무용단의 공연 또는 연습 시, 부상의 예방을 위해 재활트레이너를 파견 및  
운동처치실(동송아트센터)에서 상해예방이 진행됩니다.

- 직업전환 지원: 지원 중  
재활트레이너 양성과정 및 상해예방 트레이너 시범 파견,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무용인 글쓰기 강좌,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서울사이버대학-대학원 진학 지원 등

- 직업개발 및 전환 컨설팅 진행  
기간: 2015년  
장소: 동송아트센터 406호 운동처치실  
분야: 재활트레이너, 문화 관광 해설사, 문화예술기획 및 교육 콘텐츠 기획,  
웃음치료사, 뮤지컬 기획, 캘리그래퍼, 아로마 캔들 공예, 해양레저 등

- 2015 후원인의 밤 개최 예정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임원

### 이사회

	성명	직위
<b>이사장</b>	박인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b>상임이사</b>	장승헌	공연기획자, 춘천 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b>이사</b>	김선미	창무예술원 예술감독
	김순정	성신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박호빈	전문무용단연합회 회장, 댄스시어터 까두 대표
	서양범	서울예술대학 영상미디어과 교수
	손인영	NOW무용단 예술감독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분야 교수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이 혁	열린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이경태	이경태정형외과의원 원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	
최경원	사단법인 조각보(평화운동단체)이사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	
<b>감사</b>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b>후원회장</b>	허수창	오원종합개발 대표

### 자문위원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학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성기숙	무용평론가, 연낙재 관장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회장
윤성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이종호	서울세계무용축제 예술감독
장인주	무용평론가
정재알	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정태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후원회**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의 상해재활 및 예방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해주시는 후원금은 무용수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후원회 등급과 혜택

등급	후원액	혜택
디아길레프	1000만원 이상	무용인 한마음축제 초대 리셉션 초대 전문무용단연합회 소속 무용단 공연 5회 초대
이사도라	500만원 이상	무용인 한마음축제 초대 리셉션 초대 전문무용단연합회 소속 무용단 공연 3회 초대
니진스키	300만원 이상	무용인 한마음축제 초대 리셉션 초대 전문무용단연합회 소속 무용단 공연 2회 초대
피나	100만원 이상	무용인 한마음축제 초대 리셉션 초대 전문무용단연합회 소속 무용단 공연 1회 초대
한마음	50만원 이상	무용인 한마음축제 초대
기부릴레이	10만원 이상	무용인 한마음축제 초대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CMS자동이체)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허가 설립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 80조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 하나은행\_ 274-910005-14104
- 예금주\_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문의\_ 02-720-6202, 6203, 6208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후원회**

등급	기부자	직함
디아길레프	이세웅	국립발레단 명예 이사장
	서울사이버대	
	허수창	주)오원물산 회장
이사도라	이경태	이경태정형외과 원장
	익명	
	전준식	동아특수화학 회장
니진스키	김영재	새한프레시안 사장
	박인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해련	트리니티 대표
	오로라발레클럽	오로라발레클럽
피나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익명	
	최성숙	그랑파리 대표
	최경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
	심재권	태남석유 회장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허창	전. 상아제약 회장
	진은석	대한손해 사장
	김승남	조은문화재단 이사장
	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故 송승훈	
	장인주	무용이론가
	정휘재	에스티원 대표이사
	김도열	하나기술 대표이사
	최치림	전.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백연옥	계원예술학교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최승원	주)지앤드씨푸드 대표
	채명기	DSE Logistics 대표
	박선주	범무법인 신경 변호사
	이상준	프리마호텔 사장
	박금자	성암아트홀 이사장
	정환	한화생명 팀장
	손관중	한양대학교 교수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장승현	공연기획자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혜진	숙명여자대학원
김순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장선희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정미자	뷰티플가든발레단 단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이경희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최진용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표이사	
고성대	고성개발주식회사 회장	
이혁	열린마음신경정신과 원장	
안종환	주)아이마켓코리아	
이철완	초록한의원 원장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	
기부릴레이	안지민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김인숙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박호빈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정미란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노재천	안양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

등급	기부자	직함
기부릴레이	청무회	
	강순자	
	김효정	성남문화재단
	정태원	변호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자문위원
	차유미	고순도코라이 대표이사
	윤성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도정남	청주대학교 교수
	차수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혜영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도희	숙명여자대학교 조교
	원효경	숙명여자대학교
	윤병희	주부
	신설아	설무리무용단 회장
	함지원	숙명여자대학교
	전효정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장운규	서울발레시어터
	허예지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이영원	수원대학교
	김지현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최유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순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민지	숙명여자대학원
	금강리	숙명여자대학원
	장윤미	숙명여자대학원
	이희영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신종현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박경남	부천볼소이아카데미 원장
	문신원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임은정	숙명여자대학원
	박승주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희	서원대학교 교수	
엄재용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김한나	숙명여자대학원	
노은초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강향숙		
제임스전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박지영	영재원 조교	
최보미	숙명여자대학원	
김은숙	숙명여자대학원	
김화숙	원광대학교 교수	
김복선	동아대학교 교수	
오현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무국	
김학자	한국발레협회 고문	
손인영	NOW무용단 예술감독	
장광열	춤 비평가	
김병화	NOW무용단	
김한송	NOW무용단	
박송이	NOW무용단	
이진주	NOW무용단	
박세희	NOW무용단	
허혜란	숙명여자대학원	
양선희	세종대학교 교수	
김인선	계원예술고등학교	
문영	국민대학교 교수	
조현경	서울발레시어터	
임영희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 2015 IOTPD 국제총회 참가국가

### IOTPD 회원국

Sarah Guillermin, General Secretary,  
Association pour la Reconversion des Danseurs Professionnels (Lausanne, Switzerland),  
Alex Dubé, Executive Director,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New York, USA),  
Agnès Wasserman, Centre National de la Danse Director,  
Professional Resources Department(Paris, France)  
Amanda Hancox, Executive Director, Dancer Transition Resource Centre (Toronto, Canada)  
Jennifer Curry, Director of Development, Dancers' Career Development (London, U.K.)  
Paul Bronkhorst, Executive Director,  
Dancers Retraining Program (Amsterdam, the Netherlands)  
Sabrina Sadowska, Chairwoman, Stiftung Tanz, Transition Zentrum (Berlin, Germany)  
In-Ja Park, Chair,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Seoul, Korea)

### 참관국

#### 중국

Jian Ping Ou, Director and Research Fellow, Dance Research Institute under Chinese  
National Academy of Arts attached to the Ministry of Culture of China  
Duan Fei, Director , Gala Performance

#### 홍콩

Joseph Morrissey , Director, Artistic Planning & Touring of The Hong Kong Ballet

#### 일본

Adachi Etsuko, Executive Director, The Association of Japanese Ballet companies,  
Chairperson of Tokyo City Ballet Company  
Chie Yamamoto , Staff , The Association of Japanese Ballet Companies,  
Staff of Tokyo City Ballet Company  
Tosi Hirai , Staff, S&H Ryugaku Center  
Rui Ozaki , Ballet Journalist  
Kumi Oyama, Director, Star Dancers Ballet

#### 벨기에

Tom de Jager, Dancer, Royal Ballet of Flanders